

무주의 '흥' 을 느껴요

반딧불축제 전통놀이 공연 기절놀이·씻다리 밭기 등



주민들의 "흥"이 담긴 다양한 전통놀이들이 무주반딧불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로 꼽히고 있다. 무주반딧불축제의 상징이 되고 있는 전통놀이들은 기절놀이와 씻다리 밭기, 낙화놀이, 디딜방아 액막이놀이 등으로 해를 이어 오며 차분하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지난 28일 반딧불축제장 주공연장에서 펼쳐졌던 기(旗)절놀이는 무주군 무풍면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놀이로 윗마을과 아랫마을이 마을의 상징인 농기(旗)로 세배를 주고받으며 화합을 다졌던 놀이를 재연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차례 펼쳐지는 기(旗)의 위용과 농악대의 흥이 어우러진 기(旗)절놀이는 13회 축제 때 관람객들에게 처음 선보여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관객들은 "대형 기(旗)의 위용에 정말 깜짝 놀랐다"며 "반딧불이와 함께 멋진 구경을 하게 돼서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전했다.

10회 때부터 축제를 계기로 반딧불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이 된 씻다리 밭기(낙대천)는 주민들이 직접 설치한 씻다리 위에서 전통놀이와 농악놀이, 삼여행렬 등 잊혀져가는 옛 문화를 재연하는 것

로, 내달 2일과 3일, 4일(남대천)까지 펼쳐질 낙화놀이(줄을 타고 떨어지는 불꽃들이 마치 꽃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는 안성면 주민(금평리 두문마을 낙화놀이 보존회)들이 지난 12회 축제 때부터 재연해 인기를 모으고 있는 행사로 새만금 등 타 지역행사에서도 초청을 받으며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

낙화놀이는 물위에서 즐기는 전통 불꽃놀이로 줄을 맨 긴 장대에 뽕나무와 숲, 소금을 한지로 싼 물

치(낙화봉, 2천여 개 정도)를 달고 불을 붙이면 바람결에 흩날리는 불꽃들이 인상적이다. 나뭇배를 타고 흐르는 대금의 선율이 어우러져 그 감동은 배가 된다.

무주군 부남면 주민들이 전승해 오고 있는 디딜방아 액막이놀이는 (31일 남대천) 무병장수와 풍년을 기원하던 거리기원제로 80여 명의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춤과 제와 농악놀이를 선보이는 모습이 흥겹다. 제4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문화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수작이다.

무주반딧불축제 지원단 김상선 단장은 "무주반딧불축제는 주민들이 흥을 싣고 정성을 담아 이끌어 가고 있는 참여축제"라며, "각 읍면에 전해 내려오고 있는 전통놀이들이 주민들의 정성을 통해 무주반딧불축제의 재미를 키우고 품격을 높이며 무주만의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 삼례 책마을 문화센터 개관

사라져가는 책 문화를 살리고 책으로 소통하는 문화 공간 허브역할을 할 '완주군 책마을 문화센터'가 문을 열었다. 군은 29일 박성일 완주군수와 정성모 완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내빈 및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례읍 책마을문화센터에서 개관식을 가졌다.

이번에 문을 연 삼례책마을 문화센터에는 '책'을 중심으로 주민 및 독서애호가들의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돼 있다.

군은 중고서적 10만권 이상이 비치된 헌책방을 비롯, 독서 및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인 '북카페', 북극시장, 북페스티벌, 북케어 등 다양한 문화프

로그래를 진행할 수 있는 주민 문화공간 등을 통해 새로운 '책 문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군은 특히 문화예술도시의 문화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삼례책마을 문화센터가 '책'을 테마로 지역주민, 관광객, 전문가, 학생이 서로 소통하는 책 문화 허브공간을 구축해 지역문화관광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성일 군수는 "이번 삼례 책마을 문화센터 준공을 통해 완주군은 고서를 중심으로 다양한 책 문화콘텐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단계별 추진을 통해 문화예술도시 '완주'로서의 품격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장수군, 환경오염행위 감시 강화

다음달 21일까지

장수군은 추석을 앞두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은 추석연휴기간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29일부터 9월 21일까지 단계별 환경오염행위 감시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추석연휴 전인 9월 13일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사전검토 및 자율점검 안내문을 발송하고 하천 및 중점관리사업장 순찰을 강화한다.

특히 1개소 2명의 특별지도·점검반을 편성, 30일부터 9월 9일까지 관내 대기·폐수배출시설 6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 47개소, 사업장폐기물배출시설 4개소를 대상으로 관내 환경오염

물질배출사업장 자체점검 안내 공문 발송, 방지사설 운영일지 작성여부, 대기배출시설 자가 측정 이행여부, 악취과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악취측정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추석연휴기간인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상하수도를 운영,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하고 추석연휴 후인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배출시설 및 방지사설 등의 점검기간 가동중단 후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기간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계도 후 개선을 유도하고 고의적인 위법행위 또한 중대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행정처분 등 즉시조치와 처분이행실태를 확인하는 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목공예 체험 부스를 지원하고 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목공예 체험 부스 지원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중세)는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목공예 체험 부스를 지원한다.

산림문화활동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체험자가 직접 자신만의 나무 액세서리를 만들어보며 자연스럽게 나무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공예 체험의 취지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천연기념물을 소재로 한 환경테마축제인 '무주반딧불 축제기간동안 운영되는 홍보부스에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와 함께 목공예체험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띄워주는 한편, 숲가꾸기사업, 사유림매수, 산불방지, 유아숲체험원 운영 등의 사업을 통해 산림청의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 번암면 원사암 마을이 산림청에서 실시한 2016년 소각산불없는 녹색마을로 선정됐다.

장수 원사암마을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선정

장수군 번암면 원사암 마을이 산림청에서 실시한 2016년 소각산불없는 녹색마을로 선정됐다.

원사암 마을은 연초 영농부산물 등 각종 마을회의 시 산불의 피해 및 그 방지대책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산불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해왔다. 정태선 번암면장은 "이번 원사암 마을의 성과가 보다 많은 마을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연사사무소에서도 최선을 다해 산불예방 및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클린하우스 13곳 시범설치 완료

진안군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3NO운동 추진과 함께 13개 마을에 대해 우선적으로 쓰레기 선진거점 수거방식인 클린하우스(Clean House) 시범 설치를 마쳤다.

군은 1억9,000여만원이 투입된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을 통해 기존 문전수거방식에서 거점화 수거 방식인 선진형 쓰레기 관리 방식으로 전환시켜 쓰레기의 친환경적 관리와 경제적인 수거로 청정진안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클린하우스는 재활용품별 분리수거함 8개와, 무단투기감시용 CCTV, LED 조명시설, 악취 탈취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청정환경 유지는 물론 쓰레기 수집 운반의 효율화로 청소차 운행거리 감소와 함께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307개 전 마을 설치 목표로 클린하우스시설 설치 예산을 확보하고자 구간 수차례 환경부와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방문을 통해

각별한 노력 끝에 국비(특별교부세)예산 6억을 추가 확보하여 추경예산 편성과 함께 하반기에도 50개 마을에 동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항로 군수는 "앞으로 쓰레기 3NO운동과 함께 주민들의 분리배출 생활화를 정착시켜 클린하우스를 쾌적한 마을 컴퓨터로 조성하겠다"며 "클린하우스를 통해 환경개선 효과는 물론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의식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 - 방송코미디언협

농촌관광활성화 협약 체결

완주군이 농촌관광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사)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29일 군청 회의실에서 박성일 완주군수, 임용수 방송코미디언 협회장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완주군은 회원들에게 귀농귀촌 사전 체험 및 창작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코미디언협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농촌관광 팸투어, 귀농귀촌자 유치, 군민의 날 및 와일드푸드 축제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완주군 홍보 및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날 협약식과 와일드푸드 축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과 함께하며 대외적으로 완주군 홍보에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대사 1호로 위촉해 군민의 날 행사와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고원 트로트페스티벌

홍삼축제 홍보 기간간담회

진안군은 29일 '2016 진안홍삼축제 진안고원 트로트페스티벌' 기간간담회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항로 진안군수와 박명석 군의장을 비롯해 조지위 원장, 남진, 송대관, 진성, 신유, 김혜연, 유지나, 박규은, 쿡밴드 등이 참석했으며 이제이와 금잔디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간담회 전 홍삼축제 홍보를 위한 금척무용단의 몸금척무 퍼레이드단이 입장하자 기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전통 의상과 의복을 착용하고 진안 고유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금척무 무용단의 퍼레이드로 기

진안사람, 홍보대사 위촉해 수여식, 조지위원장 남진의 인사, 트로트페스티벌 관련 브리핑과 미니인터뷰 및 자유질문 순으로 진행되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랑스런 무주경찰 시상식

무주경찰서(서장 최성규)는 29일 각 과장 및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 백성기)이 참석한 가운데 지랑스런 무주경찰을 선발하여 포상했다.

이번 포상은 경무과 청문감사관 이을섭, 수사과 김호정 경위가 선발됐다.

지랑스런 무주경찰은 각 기능별로 추천을 받아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우수한 직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이을섭 경위는 감찰업무에 담당하며 직인 내부민족 향상을 위해 노력했고, 김호정 경위는 기피부서임에도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단속을 성실히 수행하는 모범적인 생활로 4대과 근절에 일조했다는 평가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 만경강포럼 기획위원 위촉

완주군은 29일 '만경강포럼'을 이끌어갈 기획위원 17명을 선정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민선6기 후반기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나갈 '만경강포럼'은 호남의 맥을 이어온 만경강의 가치를 담아 강과 그 주변의 △역사 △문화 △생태 △마을과 삶 등을 주제로 2018년까지 릴레이 포럼 정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만경강포럼은 만경강의 생태자원에 한정하지 않고 완주군의 가치를 발견하는 포괄적 인문학정책으로 확대해 '만경강과 완주군민의 삶과 가치'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선정된 17명의 기획위원은 완주군발전연구원 황태과, 조법중 교수, 전북대학교 산림환경과학과 박종민 교수, 강살리기완주네트워크 이근석 대표,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처장이 선정됐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진장소방서, 논·밭 소각 119 신고 의무화 홍보 총력

무진장소방서(서장 조용주)는 산림인접 지역 및 논과 밭 주변 소각함에 있어 119 및 관할 소방서에 신고 의무화를 홍보에 나섰다.

전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2조(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에 있는 행위(신고등) 개정 사항으로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이 추가 되어 위 법령 신고를 위반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은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소각행위 시 일시와 장소 및 사유등을 119에 신고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전북소방본부는 최근 3년간 산불 화재 312건 중 사망 3명, 부상 5명, 오인출동 2,705건이 발생, 무진장소방서는 오인출동을 줄이기 위해 각종 소방안전교육 시 조례 개정사항 홍보와 마을회관 방송을 실시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서울 강동구 새마을부녀회 진안 마이산고추시장 방문

서울강동구 부녀회(회장 한삼림)는 29일 자매결연지인 진안군의 마이산 고추시장을 방문 고품질 고추를 구매하고 부귀김치공장에서 진안산 고춧가루 양념을 이용한 김치 담그기 체험을 실시했다.

특히 오후에는 산악초타운에서 진안군 새마을부녀회(회장 이영례) 주최로 강동구 부녀회의 양 단체 회원들의 상견례와 진안 농특산물을 소개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강동구부녀회회원들은 "자매결연지를 방문해 품질 좋은 농산물도 구매하고 진안 부녀회원들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너무 반가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산물 직거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례 회장은 "강동구 부녀회의 진안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 자리를 계기로 넉넉한 인심을 나눌 수 있도록 활발한 교류로 우의를 다져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